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0 vol.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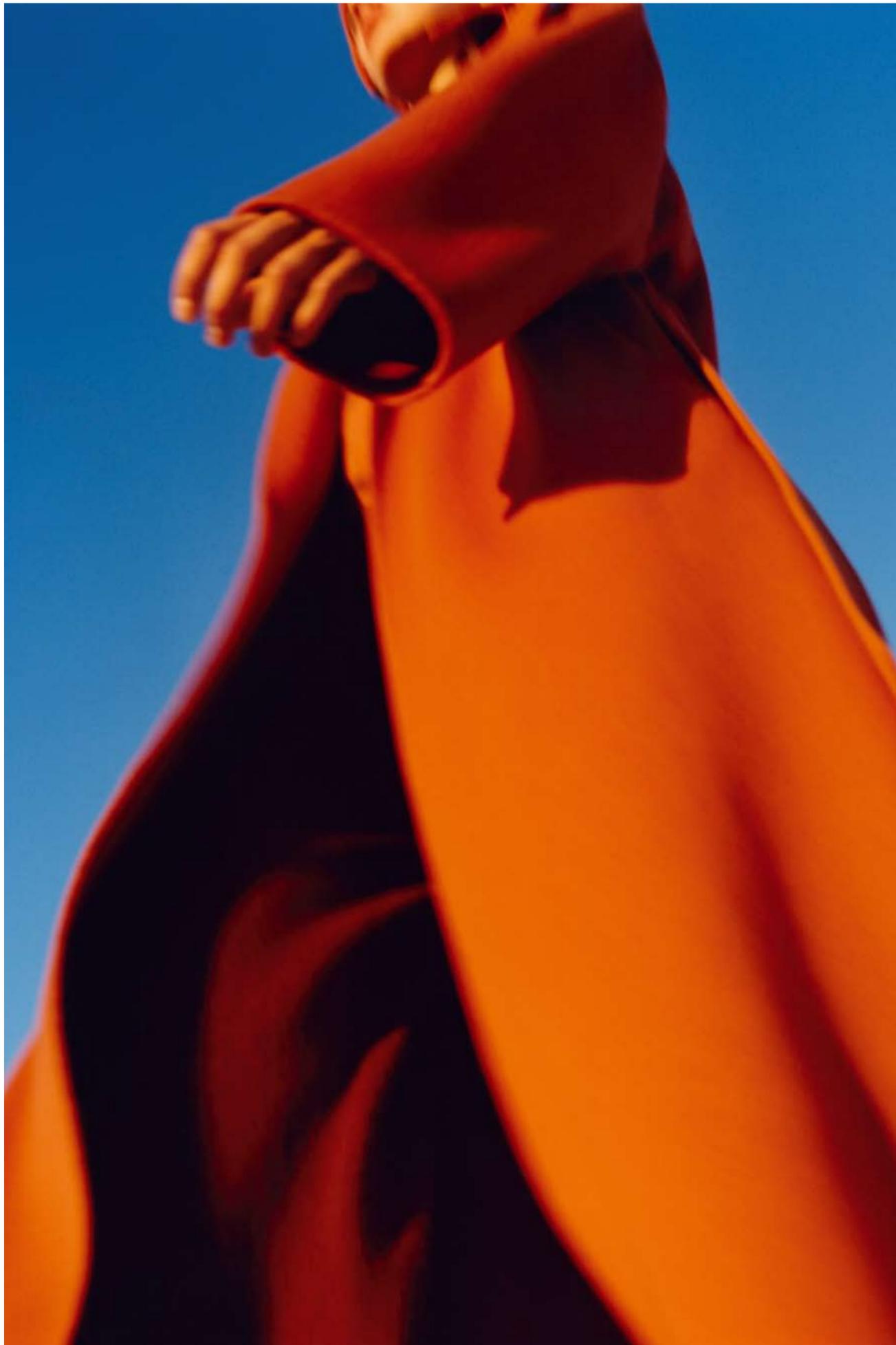


Cartier

BALLON BLEU DE CARTIER COLLECTION



the saddler's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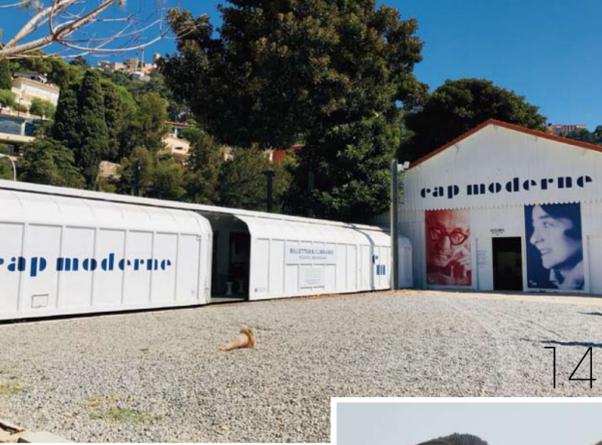


loropiana.com



SOMEWHERE IN LORO PIANA





28



가르피에의 아이콘 워치 컬렉션 발롱 블루 드 가르피에가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리 워치를 선보인다. 부드러운 라운드 형태와 케이스 인쪽에 들어가 있는 크라운, 철질 모양 미닛 트랙 등 상징적인 아이콘리티를 담은 이 워치는 기능과 디자인의 미학을 모두 갖춘 동시에, 스틸 소재와 다이아몬드 세팅을 결합하는 매종의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도전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의 1566-7277



20



10

14 EILEEN GRAY 187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76년 파리에서 세상을 뜬 아일랜드 그레이(Eileen Gray)는 거의 백수를 누리면서 디자이너로서 이름 인정받았고, 건축가로서도 꾸준한 행보를 펼쳤지만 당대에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불온'이라는 수식어를 달기에는 성향 자체가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은둔형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내성적이지만 끊임없이 탐문하고 도전하기를 즐겼고, 사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독자형성 만들어갔다. 말년에야 주목받으면서 결국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디자인·건축계의 아이콘으로 남았지만, 아직도 수수께끼처럼 숨겨진 면모가 많아 가장 신비로운 창조혼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일랜드 그레이. 그녀를 둘러싼 장막이 차츰 벗겨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동안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을 선보인 회고전이 뉴욕에서 열렸다.

16 BE COLORFUL 다채로운 유색 스톤 주얼리로 즐기는 유아한 방식의 컬러 플레이.

18 NEW WAVE 헤리티지를 표현하되 동시대적일 것. 공통된 디자인 코드 속에서 익숙한 듯 새로운 모습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빅 패션 하우스의 2020 F/W 백 & 슈즈.

19 BLUE ATTRACTION 높고 청명하고 푸른, 휴대편안 가져다 대도 딱딱 작품 사진이 완성되는 가을 하늘을 닮았다. 깊고 푸른 블루 다이얼 워치 7.

20 BE WITH ME 지금, 우리, 여기. 2020 가을, 겨울 뉴 잇백(it-bag)의 유혹.

28 건축가 최민욱의 실험 서울 종로 창신동에 있는 건축가 최민욱의 집은 도전 정신만 있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아틀란티스 기능적인 협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좋은 집이란 과연 어떤 집일까?" 하는 물음에도 번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최민욱 소장은 이 집으로 2020년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30 원표의 미학 사람도, 자연도, 지구도 모두 쉬어 가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1 THE EMERGENCE OF LIFE 2020년 새롭게 탄생한 라프라페리의 아이콘 스킨 캐비어 리퀴드 리프트 퍼밍 세럼. 가장 진보한 캐비어 과학으로 새롭고 강력해진 포물라가 피부에 놀라운 생명력을 선사한다.

32 2020 F/W BEAUTY TREND 탐스러운 글로 스킨과 원 포인트 레드 립, 경계를 허문 아티스틱한 아이라인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제안하는 2020년 하반기 뷰티 트렌드.

33 EDITOR'S PICK 탄력 증진과 보습, 집중적인 스킨케어에 위한 <스타일 조선일보> 뷰티 에디터들의 픽

34 ON A BICYCLE 햇살과 바람이 좋은 날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청명한 어느 가을.

ZOEY DEUTCH - DISCOVER MORE ON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211 October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빛나는 1백25주년

장인 정신에 기반해 크리스탈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보여주는 이들에 스와로브스키가 창립 1백25주년을 맞아 특별 컬렉션을 선보인다. 패션계의 전설 칼 라거펠트, 브랜드의 뮤즈 페넬로페 크루즈가 참여했으며, 각 아이콘의 아이콘티피가 담긴 아이콘즈 오브 스타일, 아이콘즈 오브 필름이란 이름으로 다채로운 크리스탈의 매력을 소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 스와로브스키만의 색과 철학을 오롯이 담은 아이콘즈 오브 크래프트앤스에서는 상징적인 포인티지 기법을 적용한 독보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물방울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크리스탈 티그리스 네크리스 64만9천원, 이어링 64만9천원, 문의 02-6930-9831 에디터 이지이



LINK UP

모던하고 강인한 매력을 지닌 골드 체인 주얼리. (왼쪽부터) 타사키 M/G 타사키 스타라드 링 담수 진주를 감싸는 옐로 골드 체인 장식이 우아하고 관능적이다. 2백만원대, 문의 02-3461-5558 프래드 포스텐 브레이크아웃 버클의 구조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은 자신감, 포부, 활기를 상징하며 옐로 골드 체인 브레이크아웃에서 세련미가 느껴지는 제품, 8992만원, 문의 02-514-3721 티페니 티페니 하드웨어 그레이드아이티드 링크 이어링 뉴욕 도시 곳곳의 건축물과 오브제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으로 볼드한 체인 링크를 통해 강렬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지이

PRADA.COM/AUCTION

ITEM FEATURED IN AUCTION:
GALLERIA SAFFIANO LEATHER TOTE
BLACK
AUTHOR: MIUCCIA PRADA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ENTLEMEN'S BOOTS



건조하고 편안한 첼시 부츠로 멋을 내기 좋은 계절, 알프르렌 퍼플 리벨에서 출시한 프라스코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소개한다. 모던하고 날렵한 세이프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프랑스산 최상급 소가죽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고, 발목 부분에는 브라스 버클 장식의 벨티드 디테일을 더해 감각적이다. 데님, 레더 소재의 캐주얼한 아이템부터 포멀 슈트 룩까지, 어디에나 두루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 1백60만원대, 문의 02-3438-6235 에디터 이혜미



탄력의 조건

환경기 건조한 피부를 위한 탄력, 주름 케어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퍼펙스티브리자 마이티로 힐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227가지 미세 영양 성분을 담은 고농축 로즈 바이올렛 에센스 마이크로 필리 피부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 탄력, 주름,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이다. 30ml 31만9천원대, 문의 080-342-9500 연직 자족속 안티에이징 에센스 보습강을 강화한 포플라가 포피와 진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리뉴얼 신제품. 풍부한 단백질, 식물 섬유를 함유한 저분자 단백질과 작은 분자를 담아 피부에 활력을 부여한다. 40ml 13만원대, 문의 1644-4490 상쾌하기 바이오 리프팅 세럼+ 블루 리프트에 의한 디지털 에이지링 같은 약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제품. 살가한 포플라에 담은 식물 줄기세포, 5개의 펩타이드, 기타 보태-니컬 성분은 피부를 당겨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30ml 39만7천원, 문의 02-517-0902 테코르테 리프트 디펜스 인텐스 리주베이팅 크림 광채로 열매, 인삼, 사들 드 밀 로즈 추출물 등의 유려 성분은 담은 촉촉한 텍스처의 피링 크림. 뛰어난 주름 개선 기능으로 페이스리안들 애용하고 입체적으로 가꿔준다. 50g 12만5천원대, 문의 080-568-311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혜미

EXHIBITION

디지털 시대의 융합적인 예술을 섬세한 감성으로 빛내는 고풍적인 전시 콘텐츠가 찾아왔다. 미술가, 엔지니어, 수학자, CG 애니메이터,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아티스트 그룹 teamLab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디자인 전시관에서 선보이는 <teamLab: LIFE>展이다. 일본 도쿄 오다이바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상상전 <teamLab Borderless>를 워싱턴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감성의 수려한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의 내공을 활발히 펼쳐온 teamLab의 새로운 대형 전시인 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연예 기획사이자 드라마 제작사 (주)문화창고가 해외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인류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때로는 자녀에게 기혹한 위협을 주는 존재인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루는 이번 전시는 8개 공간



'Untitled' (2020), Digital Installation, Continuous Loop, Sound by Hideaki Takahashi
teamlab.art

PRADA

Sotheby's
ORIGINAL PIECES FROM THE PRADA FASHION
SHOWS IN MILAN WILL BE AUCTIONED IN OCTOBER.
PROCEEDS WILL BE DONATED TO
UNESCO EDUCATIONAL PROJECTS.



크림을 소재로 정제된 미끄럼 방지 코팅, 크. 5X16cm, 45만 원. **조이비용**.

코튼이 들어간 울과 캐시미어를 혼용한 스카프.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울과 코튼이 혼용된 스카프. **로로피아나**.

데일리의 유틸리티 포켓. 블랙 1백만 원대. **루이비통**.

카프 스킨 부츠. 1백90만 원대. **로로피아나**.

부츠 주머니 옆에 가죽 디테일. **마이클 코어스**.

직사각형 케이스에 빈틈없는 빔하늘을 담은 들체. 바타 1백70만 원. **루진**.

LONGINES

조이그리아는 080-202-2002 루이비통 02-3432-1854
 지형시 02-546-2790 토즈 02-3438-6008 로로피아나 02-546-0615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워렌드 막스미라 02-511-3935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루진 02-310-1597
 실바토레 페리자모 02-3430-7854 렌디 02-514-0652 켈린드 02-540-0486 에르메스 02-542-6622

for her Selection

주말엔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리본 장식 헤이미스 33만 원. **실바토레 페리자모**.

가죽 스킨 결합. **로로피아나**.

타이완산. 인공로마네티. 스몰 보닛형. 28X17cm. 39만 원. **루진**.

그라픽 포커 카드 15만 원. **에르메스**.

바진 울과 알파카 소재가 어우러진 케이프. 99만 원. **워렌드 막스미라**.

부드러운 양주. 양신 폼. 가죽 마감. **샤넬**.

샤넬에서 유한정 하우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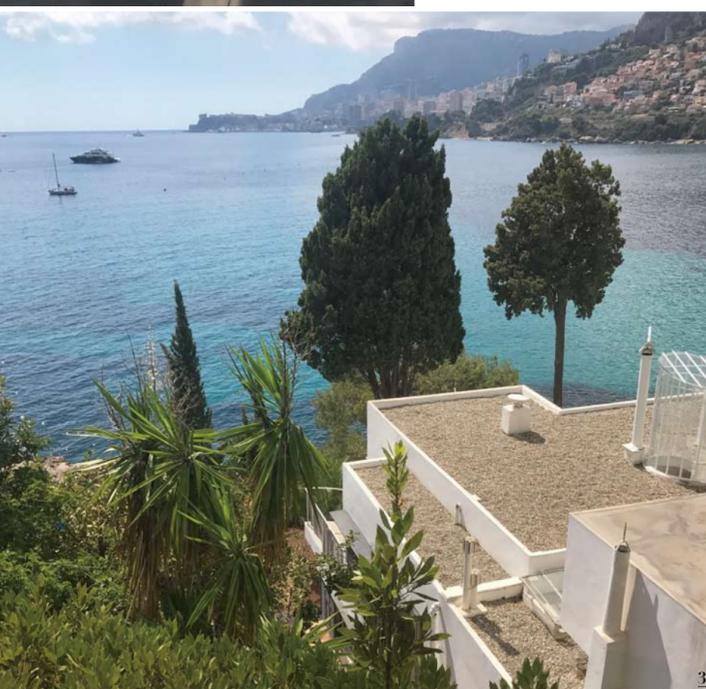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SHINSEGAE MAIN GANJ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02.516.9517 WWW.COLOMBOVIADELLASPIGA.COM



Eileen Gray

The Women Who Inspire Us_10



187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76년 파리에서 세상을 뜬 아일랜드인 그레이(Eileen Gray)는 거의 백수를 누리면서 디자이너로서 나를 인정받았고, 건축가로서도 꾸준한 행보를 펼쳤지만 당대에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불운'이라는 수식어를 달기에는 성향 자체가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은둔형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내성적이지만 끊임없이 탐문하고 도전하기를 즐겼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갔다. 말년에야 주목받으면서 결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디자인·건축계의 아이콘으로 남았지만, 아직도 수수께끼처럼 숨겨진 면모가 많아 신비로운 창조혼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일랜드인 그레이. 그녀를 둘러싼 장막이 차츰 벗겨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동안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을 선보인 회고전이 뉴욕 바드 센터(Bard Graduate Center)에서 열렸다.

우리네 일상에 우월한 그림자를 드리워버린 코로나19가 원망스러운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설렘을 안고 떠나던 장거리 여행길이 상당수 막혀버렸다는 사실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물리적 통제는 심리적 장벽 탓이든 간에 섀넌 타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넘보지 못하게 된 현실이구나... 그래서 휴대폰 사진첩을 들여다보노라면 문득 그리워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뻐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 애뜻한 장소가 있다. 필자에게는 쪽빛 지중해를 배경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는 듯한 남프랑스가 그리한 여행지로 손꼽히는데, 여기에는 고인이 된 지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최근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한 걸출한 크리에이터의 자분도 제법 크다. 지금도 영감을 북돋우는 그 이름은 20세기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아일랜드인 그레이(Eileen Gray). 3년 전 여름, 남프랑스의 바닷가에 자리한 마을 로크브룬-카프-마르탱(Roquebrune-Cap-Martin)에서 그녀의 창조혼을 마주했던 시간은 곧 뜻깊은 발견이기도 했다. 명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안의 공간을 채운 가구를 실물로 접하면서 제대로 입문하게 됐다고나 할까. 마침 아일랜드인 그레이와 더불어 근대건축의 원리를 스위스 출신의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를 묶어 조명하는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었기에 시각적, 지적 정보가 더 풍부하게 다가왔다.

쪽빛 지중해를 긴 마을에 은은한 보석처럼 빛나는 자취
사실 로크브룬-카프-마르탱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르 코르뷔지에와 관련된 '성지순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니스, 칸, 모나코 등 인



기만점 도시들이 자리한 일명 '코트다쥐르(Côte d'Azur)' 지역에 속한 이곳에는 르 코르뷔지에가 생의 말미를 보낸 4평짜리 오두막인 카바논(Le Cabanon), 캠프족을 위한 숙박 시설, 그리고 그가 식사를 즐겨 했던 레스토랑이 사이좋게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 코르뷔지에의 유산을 보러 왔더라도 그 안에 있는, 고풍적인 푸른빛을 뿜어내는 바다를 향해 돌출한 곳 위에 자리 잡은 하얀색 장방형 건축물에 시선을 빼앗길 공산이 크다. 바로 그레이가 설계하고 실내에 들일 가구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고 디자인한 '빌라 E-1027'이다. 평평한 지붕,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필로티), 내부를 벽으로 나누지 않은 오픈 플랜, 루프 테라스... 햇살 속에 청신하게 빛나는 이 순백색 저택은 1929년 완공됐는데, 르 코르뷔지에의 근대건축 5요소를 아무렇게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부아(1931년 완공)를 비롯해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주택에 앞선 시기다. 실제로 르 코르뷔지에가 이 빌라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다. 그레이는 E-1027 빌라를 자신의 젊은 연인이자 건축 잡지 편집장이던 장 바도비치(Jean Badovici)의 제안과 도움으로 자신들을 위한 작은(1천4백 제곱피트) 보금자리로 3년에 걸쳐 설계했는데, 둘과 교류가 있던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에 자주 들렀다. "그레이표" 디자인 언어는 실용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정서가 배어 있다. '캠핑 스타일(camping style)'을 표방한 이 집의 가구 컬렉션에서도 그 같은 면모가 묻어난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접이식 의자와 테이블, 길게 누워 낮잠을 청할 수 있는 데이베드, 이동식 파티션과 스크린 등을 보면 깔끔하면서도 운치 있다. 상판 높이를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테이블 다리를 침대나 소파 밑에 넣어 쓸 수도 있는 테이블 E-1027은 크롬 도금한 강철과 유리를 조합한 간결한 스타일과 기능성으로 모더니즘을 반영한 수작으로 여겨진다(그 자신은 '어떤 사조를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이처럼 장성을 쏟은 빌라와 그리 오래 함께하지 않았다. 1931년 장 바도비치와 헤어지면서 미련 없이 그에게 주고 떠났기 때문이다(외국인 신분인 그레이는 E-1027을 설계할 때 대지를 사면서 '건축주' 이름으로 장 바도비치를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1956년에 장 바도비치가 명을 달리했고, E-1027 빌라는 결국 경매로 나오면서 르 코르뷔지에와 친분이 있던 스위스 재력가의 손에 들어갔다가 1999년 프랑스 공공 단체의 소유가 된다. 전쟁 등으로 망가진 이 빌라는 세밀한 복원 과정을 거쳤고, 2015년 르 코르뷔지에의 오두막과 캠핑 사이트 등을 합쳐 2015년 여름 카프 모데르네(Cap Moderne)라는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3년 전인 2017년 필자가 카프 모데르네에서 접한 전시는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아일랜드인 그레이와 르 코르뷔지에의 숨겨진 장소에서 개최한 2인전이었던 것이다.

그레이의 발자취를 찾아라, 각국에서 펼쳐지는 '재조명' 작업

아일랜드인 그레이는 파리로 들어가 생을 다할 때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스케치를 꽤 남겼지만 실제로 구현된 건축·인테리어 프로젝트는 9건 정도로 추정). 하지만 활동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아 숨겨진 무엇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한다. 그녀가 역사에서 희미한 존재로 사라질 뻔한



배경에는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었던 당시 풍토도 있었지만,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걷고자 하는 사적인 성향도 한몫을 했다. 부유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런던의 슬레이드 아트 스쿨에서 공부한 미술학도였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장인 스가와라 세이조를 만나 옷칠 공예에 눈을 뜨면서 20세기 초 파리로 향한다. 바이흐로 문화 예술의 전성기인 벨 에포크 시대. 아르누보, 아르데코, 바우하우스 등 새 흐름이 밀물과 썰물처럼 물이던 이 시기에 그녀는 가구에 옷칠을 입히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추상적인 조형물처럼 바꾸는 작업에 열중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1922년에는 친구와 손잡고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와 리그 등을 판매하고 미술품 거래로 아우르는 매장을 파리에 연다. 남성을 연상시키는(연인 장 바도비치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정되는) 가명을 붙인 갤러리 장 데세르(Galerie Jean Désert)가 그것이다.

사실 그녀의 작품은 상류층과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기도 했다. 오토 쿠틀러 패션 디자이너이자 당대 최고의 컬렉터 자크 두세(Jacque Doucet), 파리 부티크의 상징 같았던 쥘리에트 레비(Juliette Lévy) 등이 고객 명단에 들어 있었다(특히 레비의 파리 아파트를 새 단장하는 인테리어 작업을 계기로 건축에도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박람회나 전시회에도 출품했는데, 네덜란드의 신조형주의 운동인 데스틸(De Stijl) 그룹에서는 큰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프랑스 언론에서는 딱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 E-1027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 잡지에도 소개되는 등 주목받았지만, 르 코르뷔지에나 장 바도비치의 작품으로 오인됐다. 여기에는 두 남성의 잘못도 있으나 퍼즐 같은 코드를 즐겨 사용했던 그녀의 작법과 내향적인 성격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E-1027 빌라의 경우, 또는 아일랜드인 그레이의 E, 10은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인 'J'(Jean), 2는 바도비치의 B, 7은 그레이의 G를 각각 뜻한다). E-1027의 설계자가 명확히 밝혀진 논문은 그레이의 첫 회고전이 1972년 런던에서 열린 지 7년,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뜬 지 3년이 흐른 뒤인 1979년 나온다. '재발견된 아일랜드인 그레이의 작품은 다시 생산되었고, 그녀의 창조적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미국 뉴욕의 바드 센터(Bard Graduate Center Gallery)에서 열린 그녀의 회고전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드로잉과 옷칠 작품도 선보였다. 새로운 면면이 드러날수록 이미 빈티지 가구 시장에서 경이로운 몸값을 자랑하는 아일랜드인 그레이의 희소성 높은 작품이 부여되는 가치는 자꾸만 더 높아져간다. 물론 그녀 자신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가치의 메커니즘 같지만 말이다. 글 고상연

1 2017년 남프랑스 로크브룬-카프-마르탱에서 열린 르 코르뷔지에와 아일랜드인 그레이 작품 전시장 모습. Photo by SY Ko 2 아일랜드인 그레이(Eileen Gray)의 초상화(ca. 1925). 베레니스 애벗(Berenice Abbott)의 Silver Gelatin Print. National Museum of Ireland 재공(NMIEG 2000, 20). 3 로크브룬-카프-마르탱의 명사로 자리 잡은 E-1027 빌라. Photo by SY Ko 4 E-1027 빌라의 거실 안테리아. 캠핑 스타일을 위한 이동형과 조립식 디자인을 많이 가미했다. 침대 아래 놓인 테이블은 E-1027 테이블로 지금도 스타디움이다. Photo by SY Ko 5 3년 동안 건축과 인테리어에 투자해 1929년 완공한 E-1027 빌라의 초창기 모습. Photo from Centre Pompidou, Bibliothèque Kandinsky, Fonds Eileen Gray



Be colorful

다채로운 유색 스톤 주얼리로 즐기는 우아한 방식의 컬러 플레이.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메 아트렘 도아 링** 유럽 왕실에서 가지는 행운, 사랑을 상징한다. 이를 항상 화한 옐로 골드 소재의 보드에 투영하고 화려한 컬러 스톤을 새겨놓은 하이 주얼리 링. 불룩한 배 부분을 장식한 오렌지색 만다린 가시(9.377캐럿)를 중심으로 연한 녹색의 라운드 컷 페리도트(0.62캐럿)와 페이커트 옐로 사파이어(0.2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1.17캐럿)가 조화를 이룬다. 1억2천원대, 문의 02-3479-1597

반클리프 아펠 부통도르 아이링 1930년대 후반 매종이 선보인 유려한 곡선형의 파이레트(Palette) 디자인에 착안한 부통도르 컬렉션. 옐로 골드에서 블랙 오푸스, 황록색 크리스토프라이트 소재로 이어지는 원형 모티프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광채를 더했다. 3천원대, 문의 1668-1906

다이아니 벨 에포크 네크리스 두 겹의 크로스 모티브로 구성된 핑크 골드 펜던트에 총 1.48캐럿에 달하는 말티칼라 사파이어를 새겨넣었다. 그린으로 시작해 옐로, 오렌지, 파플, 블루 계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컬러 번주가 아름답다. 9백59만원, 문의 02-515-1924

타사키 파운틴 아이링 불꽃놀이에서 영감을 얻은 리드미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귀고리. 고급스러운 빛깔의 남양 옥진주를 중심으로 가시, 투르말린, 시트린, 블랙 스파텔 등 다양한 컬러 젬스톤이 작성을 그려며 벨라지는 형태가 유니크하다. 1천원대, 문의 02-3461-5558

프러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각각의 상징을 담은 일곱 가지 컬러 스톤(루비, 가시, 옐로 사파이어, 차보라이트, 아파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에마사이드)을 차례로 새겨놓은 라운드로 브레이슬릿이다.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새겨놓은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을 더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불가티 디어스 드림 링 시대를 풍미한 디어를 기념하며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오픈워크 스타일의 부채꼴 모티프에 에미사이드, 시트린, 페리도트, 토파즈, 투르말린, 다이아몬드를 새겨놓은 마치 만개한 꽃처럼 보인다. 1천2백원대, 문의 02-2056-0170

스티븐 웹스터 자태버그 타라이즈 링 경쾌한 컬러 대비가 돋보이는 볼드한 링. 마니에는 시트린과 블루 사파이어, 보드에는 타라이즈를 새겨놓고, 날개 부분은 옐로 컬러의 에펠로 새겨놓은 뒤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아메리

POLO

RALPH LAUREN

BLUE



THE MEN'S FRAGRANCE

수입판매처 / (주)오디타사엔 | www.polo.com | 문의 130-382-654

TOD'S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토즈 T 모노그램 버클을 더한 그린 컬러 타일리스 백 1백79만5천원
토즈, 문의 02-3438-6008



CHANEL · FENDI

하우스를 상징하는 카멜리아 모티브 레드 브로치, 어퍼의 심플한 금장 로고 장식 허빈으로 힘을 준 미니멀한 카프 스킨 소재 로퍼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보다 길어진 가로 길이 덕분에 한층 모던한 인상을 주는 피카부 아이씨유-이스트웨스트 백 4백85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3



new wave

'헤리티지를 표현하되 동시대적인 것' 공명된 디자인 코드 속에서 익숙한 듯 새로운 모습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빅 패션 하우스의 2020 F/W 백 & 슈즈,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MIU MIU

고유한 미테르세 패턴 나파 레더에 핏 핑크 컬러를 가미, 시공스러움을 강조한 미우 벨(Miu Belle) 백, 매들 디테일의 메탈릭 골드 레더 롤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GUCCI

1960~70년대 구찌를 상징하던 재기 백이 보다 앙증맞은 모습으로 부활했다. 아이코닉한 피스톤 클로저를 단 하늘색 재기 1961 호보 미니 백 2백16만원, 체인과 크리스탈 보 장식 메리제인 펄프스 1백70만원 모두 **구찌**. 문의 1577-1921 에디터 **이혜미**



(위부터) **블랑팡 피프티 매그즈 버티스카프** 심플한 디자인에 빈티지 시계의 느낌을 삼킨 핸즈와 날짜를 표시하는 작은 창이 특징인 버티스카프. 견고함과 정밀한 측정 능력을 갖춘 칼라버 1315를 장착했으며 수심 300m 방수 가능하다.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1천5백만 원대, 문의 02-3213-2261

블가리 옥토 로마 팔각형은 생명, 무한 창조, 부활 등의 의미를 담은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이상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아이코닉한 옥토 케이스는 기능적인 팔각형을 원형, 사각형과 조화시킨 것이 특징. 지름 41mm의 스틸 케이스에 42시간 파워 리저브와 수심 50m 방수가 가능하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IW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부티크 에디션 매달 달라지는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해 2100년까지 어떤 조작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한다. IWC 부티크의 온라인 웹사이트(iwc.com)에서만 독점 판매되는 제품. 지름 44.2mm의 18K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과 블루 악자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4천5백만원대, 문의 02-3440-5876

몽블랑 1858 지안스피어 블루 극한의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콘셉트에 맞춰 블루 다이얼과 화이트 아라비아숫자를 매치했다. 세계 7대 정상에 도전하는 산의 탐험가의 정신을 가르는 시계로 12시 방향의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6시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한눈에 전 세계 시계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시계로 리더 스트랩과 브레이슬릿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7백54만원, 문의 1670-4810

에거 로블트로 마스터 컨트롤 메노복스 타이머 아이코닉한 삼각형 인디케이터로 알람 시간을 설정하거나, 끝에 레드 칼라를 칠한 작은 핸드로 타이머를 조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팅 종료 시간이나 비행기 탑승까지 남은 시간 등을 측정하는 기능도 있어 실용적이다. 스틸 케이스는 지름 40mm이며 2백50원 한정판이다. 2천1백80원, 문의 02-6905-3998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 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지름 39mm의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와 태양광 패턴의 블루 다이얼을 매치했다. 6시 방향 날짜창을 갖추었으며 핸즈와 오메가 로고, 컨스텔레이션 스타 및 인텍스는 모두 18K 세드나 골드로 제작했다. 모노링크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제품. 3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티파니 티파니 이스트웨스트 1940년대 여행용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워치로 직사각형의 간결한 라인이 특징. 스틸 케이스는 46.5x27.5mm이며, 블루 기요세 다이얼에 블루 악자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4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장려윤**

blue attraction

높고 청명하고 푸른, 휴대폰만 가져다 대도 똑딱 작품 사진이 완성되는 가을 하늘을 닮았다. 깊고 푸른 블루 다이얼 워치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남성) 체크 재킷,
가죽 미장 **엘도라도 아브마니**,
블랙 칼링 백 가죽 미장 **샤넬**.
(여성) 화이트 레이스 소재 재킷,
셔츠, 스커트, 타이츠 모두
가죽 미장 **샤넬**.



**BE
with
ME**

지금, 우리, 여기. 2020 가을,
겨울 뉴 잇백(it-bag)의 유희.
photographed by **park hyun jin**

(남성) 그린 코트 3백14만5천원,
팬츠 가죽 미장, 블랙 부츠
1백7만5천원, 크리스크로스 백
3백50만6천원 모두 **보테가 벤테라**.
(여성) 핑크 니트 셔츠, 프린지 드레스,
블랙 부츠 모두 가죽 미장 **보테가
벤테라**. 골드 아이카프 11만원 **남버링**.



(남성) 브라운 체크 블루중,
블랙 셔츠, 팬츠,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벨루티, 핑크 하운즈투스 체크 백
4백40만원 로저 비비에.
(여성) 그레이 코트 5백58만원, 옐로
블리우스 99만원 모두 토즈, 브라운
스카트 가격 미정 파스아라, 블랙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남성) 블랙 & 옐로 & 그레이 터틀넥 톱
2백38만원, 블랙 레더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앵글 부츠 99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스몰 제키 백 2백47만원 구찌.
(여성) 그레이 코트 6백만원, 레드 체크 셔츠
2백25만원, 프린트 드레스 4백70만원
모두 구찌, 골드 & 실버 셔츠 가격 미정
드라스 반 노튼, 오렌지 사이하이 부츠
2백30만원 로저 비비에, 골드 아이카프
11만원, 네크리스 38만원 모두 남버닝.

(여성) 옐로 코트 5백10만원 **마우미우**,
 그레이 주얼 베스트, 파플 셔츠, 주얼
 프란지 스카프, 실버 프란지 핀프스,
 네이비 타이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골드 아이카프 11만원 **남버링**.
 (남성) 블랙 재킷 가격 미정, 그린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팬츠 1백50만원, 블랙 부츠
 1백50만원 모두 **프라다**. 레진 BB 백
 6백50만원 **모아나**.



(여성) 옐로 코트 4백만원대,
 부츠 1백만원대, 블랙 벨트
 가격 미정, 골드 아이카프 프로 삼
 90만원대 모두 **벤디**.
 (남성) 말티콜러 니트 톱 1백만원대,
 셔츠 1백만원대, 체크 팬츠 가격 미정,
 블랙 부츠 가격 미정, 브라운
 파카부 백 4백만원대 모두 **벤디**.

(남성) 브라운 레더 코트, 패턴 셔츠, 화이트 팬츠, 브라운 쥘리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여성) 레드 코트, 화이트 타블레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여성) 네이비 롱 드레스 7백39만5천원
자황시, 블랙 부츠, 아이링,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사카이**.
 (남성) 화이트 니트 롱 2백55만5천원,
 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팬츠 가격 미정,
 브라운 부츠 가격 미정, 실크 스카프
 62만5천원, 블랙 안티고나 백
 3백13만원 모두 **자황시**.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영
 모델 Anastasia, Bogdan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통 02-3438-7682
 샤넬 080-200-2700, chanel.com
 토즈 02-3438-6008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프라다 02-3218-5331
 미우미우 02-3218-5331
 구찌 1577-1921
 자황시 02-546-2790
 켄디 02-2057-9023
 맥스마라 02-511-3935
 벨루티 02-547-1895
 모아나 02-596-9620
 오프라오 아르마니 02-540-1115
 드리스 반 노튼 1644-4490
 사카이 02-541-7510
 넘버링 070-7561-6794



건축가와 집 ① '작은' 기적, 창신동 주택 '세로로'

건축가 최민욱의 실험

서울 종로 창신동에 있는 이 집은 도전 정신만 있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기능적인 협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좋은 집이란 과연 어떤 집일까?” 하는 물음에도 넉넉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최민욱 소장은 이 집으로 2020년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30~40대 3명만 모이면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이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화병을 얻는 만인의 레이싱. 가격은 끝 간 데 없이 오르고 수요는 들끓는 틱톡에 시칫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투자를 하는 이도 많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먼 존재가 되어간다. 건축가 최민욱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 친구와 살 집을 찾아야 하는데, 손에 쥔 돈으로는 도무지 엄두가 안 났다.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직접 집을 짓기로 결정한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으레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는 줄로 알지만, 어떤 땅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건축가 최민욱이 각 층수 면적이 5평 남짓인 5층짜리 협소 주택을 짓는 데 들이간 돈은 약 3억 원. 취재를 두 차례나 했음에도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와 닿는 금액인데, 세부 비용을 따져보면 땅을 사는데 1억원, 집을 올리는 데 2억원이 들었다. 부지는 10평. 평당 가격은 약 1천만원이었다. 서울에 평당 매매 가격이 1천만원인 땅이 있다니 그것부터 놀라웠는데, 그 땅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발품을 팔아야 했다. “땅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집을 올린 창신동 일대는 재개발 이슈가 있다가 흐지부지된 곳이라 가격이 낮았어요. 부동산을 통해 그 땅을 처음 알게 됐는데 부동산 사장님도 10평 땅에 무슨 집을 짓겠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쓸모없는 땅이라 간주되니 가격이 더 싸죠.” 꼼꼼히 살펴보니 10평 땅은 이 점도 있었다. 건축법상에는 옆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부분을 띄워야 하는 일조권사선제한이란 규정이 있는데, 다행히 주변에 맞닿은 건물이 없어 건물을 5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각 층 면적이 5평인 5층짜리 집이 올라갔다. “그게 가능해?” 하고 긴가민가하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끝내 집을 올리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최 소장, 돈 없어서 집 짓고 살잖아.”

공간의 크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세로로'가 완공된 것은 작년 3월. 세로로 길쭉한 흰색의 깔끔한 집은 완공 소식을 알리자마자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짓느냐는 걱정이 무색하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5층에는 작게나마 발코니도 만들었는데, 부부가 이곳에 나



포토: 박유석



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은 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집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주택가 골목을 지나 제법 경사가 진 오르막을 오르니 저 위에 흰색 집이 눈에 들어왔다. 밝고 흰했다. 건물 뒤로 무성하게 우거진 숲이 넘실대는 모습도 근사했다. 인접한 땅을 요령 있게 잘 사용하면 차를 2대나 댈 수 있다는 사실도. 계단을 올라 2층에서 벨을 눌렀다. 깔끔한 인상의 최민욱 소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자연스레 층별 구조와 안내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각 층 공간이 넓다고는 못하겠다. 좁긴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2층에 있는 넓은 테이블에 앉아 숨을 고르고 차분히 물을 마시고 있자니 점점 아늑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화장실도 2개나 있었고, 그중 한 곳에는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었다. 욕실의 사각 창문으로는 초록 숲이 아른거렸다. 침실도 근사했다. 맞은편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창문을 열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외락 펼쳐졌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풍광이었다. 2층부터 5층까지 모든 공간에서 서울성곽 아래쪽 잡목림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다. 숲 쪽으로 최대한 크게 낸 창으로는 비탈을 빼곡하게 채운 나무가 넘실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뽕 뚫린 전망을 시야를 확장하면서 실제보다 더 넓은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을 안긴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략과 노력도 곳곳에 숨어 있다. “저희 집에 있는 가구는 거의 모두 이케아 제품이예요. 설계를 할 때부터 이케아에서 가구를 둘러보고 부분부분 치수까지 정확히 체크한 다음, 거기에 맞춰 공간을 구획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간이 안 나오니까요.(웃음) 협소 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 반입도 고려해야 해요.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집을 다 지어놓고 가구를 못 들여놓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시스템 창호를 통해 가구를 들여놨어요. 독일에 살라만타라고 시스템 창호 브랜드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창호 중 거의 유일하게 가운데에 바(bar)가 없어요. 창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거죠. 단열 성능도 뛰어나고요.”

집을 짓다 보면 단열재를 집 안에 넣느냐, 바깥으로 데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집이 작을수록 건물 바깥으로 단열재를 두르는 외단열을 권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단열재 부분을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만큼 내부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단열과 비교해 단열 성능도 더 뛰어나다. “외단열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스티코 플렉스(Stucco Flex)라는 재료를 썼어요. 탄성 있는 실리콘 계열 재질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집 외부에 조금씩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재질은 고무처럼 늘어나서 그런 크랙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줘요. 그 자체로 마감재를 대신해 따로 마무리 공정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나이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어떻게 이 작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궁금했다. 아무리 건축가라지만 5평이라는 땅은 그 역시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크기였을 테니. “한동안 줄자를 끼고 다녔어요. 5평이 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지감이 안 오더라고요. 작은 공간에 가만 가로세로 길이를 재면서 그 크기를 몸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했어요. 땅을 고르고 기초공사를 한 뒤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는 수시로 현장을 드나들며 걸어보고, 앉아보고, 둘러보고 하면서 여기에 싱크대가 들어가니까, 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했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큰 집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찾는 거였어요. 연에 시절부터 우리는 자연을 좋아했어요. 유명한 호텔에 가는 것보다 와이파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 공원으로 산책하는 걸 더 즐겼죠. 그런 성격과 취향 때문이라 이 집이 좋아요. 집에 들 수 있는 가장 큰 식탁을 둔 것도 창문으로 숲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도 자주 모이고요.”



1 서울성곽길에 호우하는 듯한 풍경의 5층진. 2 주변 풍경을 잘 활용하면 2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3 시안 창문 나뭇가지엔 자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오는 사계. 4 모든 가구의 크기를 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반영해 한 치의 낭비도 없도록 했다. 5 작은 집임수록 온전한 몸을 쉬게 하는 좋은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욕조를 넣었다. 6~7 침실을 포함해 모든 창문으로 녹색이 넘실댄다. 8 화장실이 2개고 공간 배차도 잘해 병든도 오르내릴 수 있어 할 일이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만인의 연인인 듯 보이지만 모두가 그 형태의 집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최민욱 소장 부부도 마찬가지. “집 바로 뒤로 올라가면 서울성곽길이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요. 10분만 걸으면 낙산공원까지 가 닿지요. 좀 더 걸어가면 성북동도 나오고 대호로 마로니에공원에도 갈 수 있어요. 일요일에는 천천히 걸어서 광장시장에 가요. 걸어서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죠. 지난 주에도 거기에 가서 빈대떡을 사 먹고 왔네요.(웃음)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런 집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덜 답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공원 산책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쌓인다. 그 이야기의 주연이 새나 고양이, 강아지일 때도 많다. '세로로'도 마찬가지. 최근 집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최민욱 소장 부부와 '밀당'을 하던 고양이가 아예 입주해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부부는 이 고양이에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와이너리에서 모터브를 얻어 '폼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레이블 중 하나인 '로마네 콩피'의 줄임말이다. 부부는 최근 폼피를 중심으로 두고 인테리어가 지바했다. 2층을 서재 겸 사무실로 썼는데, 집기를 새로 구한 사무실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폼피를 위해 캣타워를 넣어준 것이다. 최민욱 소장은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으니 마땅히 그 래야죠”라며 웃었다. 폼피랑 같이 창밖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에 대해서도 자랑을 했다.

창신동에 협소 주택을 지어 들어온 지도 1년 6개월이 넘었다. 단독주택에 살아보니 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시간을 꿈꾸며, 어떤 분위기에 머물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한지. 다음 집에 대해서도 더 자주 생각하게 된다. “두 가지 꿈이 생겼어요. 하나는 좀 더 큰 집에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에요. 가끔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공간이 좁으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당과 옥상이 있었으면 꽃도 가꾸고 고기도 구워 먹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다른 꿈은 그 반대 지점인데, 지금보다 더 작은 집을 설계해보고 싶어요. 집 면적이 15평 미만이면 주차장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작은 집에 살아보니 전만만 시원하게 풀리면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짓는 데 약 3억원이 들었는데, 그렇게 작은 집이라면 1억 후반대로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에게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 “간단합니다.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이지요.” 아파트가 맞으면 아파트가 최고의 집이고, 한옥에서 행복하다면 한옥이 나를 위한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약 69%가 빌라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산다. 최민욱 소장처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많아질 때 아파트 값도 꺾일 듯한데, 한국처럼 노후의 삶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와 결단, 그리고 용기는 반갑기 그지없다. 이 땅의 청춘들에게 집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는 것만으로, 글 작성자 한점관리 클럽 대표



심포의 미학

사람도, 자연도, 지구도 모두 쉬어 가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 지난 6월 갤러리 명품관 West 1층에 새로 오픈한 샤넬 프라이베, 2 샤넬의 최고급 라인 수블리마지를 비롯한 스킨케어 전 라인들을 체험할 수 있다. 3, 4 왼쪽으로 돌아서면 마련되어 있는 트리트먼트 공간. 5 매장으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복잡한 감정은 피땀결, 안색 또는 뽀루지 같은 트러블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에도 맞서야 하는 피부. 피부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꼭 필요하다. 지난 6월 갤러리 명품관 West 1층에 새로 오픈한 샤넬 프라이베는 유동 인구가 많은 백화점 1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 흐르는 시간을 잠시 잡아둔 듯 정적이고 독립적이다. 샤넬 제품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워크숍 공간과 트리트먼트 공간, 그리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곳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트리트먼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는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완벽한 트리트먼트를 체험할 수 있다. 모든 트리트먼트는 샤넬의 스킨케어 테라피스트와 상담해 진행한다. 향부터 텍스처까지 감각적이고 효과적인 최고의 샤넬 스킨케어 제품을 얼굴에 도포한 후,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예술 같은 손동작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결합한 특별한 마사지를 진행한다. 네 가지 스킨케어 라인에 따라 특별히 개발된 4개의 트리트먼트는 이드라 뷰티 라인으로 수분을 채워주는 리플레니싱(replenishing), 르 리프트 라인의 진정 및 탄력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토닝(toning), 르 블랑 제품으로 얼굴 전체에 화사한 빛을 선물해주는 라디언스(radiance), 그리고 수블리마지로 생기를 충전시켜주는 수블림(sublime) 트리트먼트. 여기에 수블리마지 제품으로 각 시즌에 특히 집중 관리해야 하는 피부 고민에 맞춘 시즈널 트리트먼트를 더해 총 다섯 가지 트리트먼트 중 원하는 것을 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트리트먼트는 1시간 15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후에는 고객 요청에 따라 메이크업 세션도 이용 가능하다.

샤넬 프라이베는 신뢰를 쌓고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하고 감성적인 공간이다.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코로망델 병풍을 중심으로 베이지와 블랙 컬러를 조합했으며, 모든 소재에서 따뜻한 휴식, 편안함, 해방감이 느껴지도록 배려했다. 울거울 몸과 마음을 위한 특별한 공간, 샤넬 프라이베를 방문해보자. 문의 02-3442-1043 에디터 정미연

Sponsored by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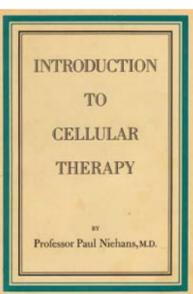


the emergence of life

2020년 새롭게 탄생한 라프레리의 아이콘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퍼밍 세럼, 가장 진보한 캐비아 과학으로 새롭게 강력해진 포물러가 피부에 놀라운 생명력을 선사한다.

아름다움을 향해 진화하는 라프레리의 혁신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캐비아다. 1987년, 과학자로 구성된 라프레리의 연구진은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캐비아의 주요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캐비아가 지닌 잠재력을 스킨케어 분야로 확장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30여 년간 끊임없이 진화하는 캐비아 과학을 통해 핵심 성분들이 개발되며 라프레리의 아이코닉한 '스킨 캐비아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풍부한 생명력을 담은 골드 캐비아 비즈가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며 라프레리를 대표하는 라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 2012년 처음 선보인 브랜드의 베스트 & 스테디셀러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는 캐비아 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아이코닉한 제품이 2020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을 주는 캐비아 앰플루트, 탄력과 퍼밍 효과를 선사하는 캐비아 프리미어에 엑스클루시브 켈루라 콤플렉스를 결합한 것. 클리닉 라프레리에서 진행한 폴 니한스 박사의 선구적인 레주베이션 연구에서 영감을 가져온 엑스클루시브 켈루라 콤플렉스는 피부에 넘치는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 캐비아 성분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차원이 다른 피부 탄력 개선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추출한 라프레리의 캐비아 성분이 특별한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 철갑상어가 최상의 캐비아를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환경, 그리고 이를 수확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스위스 장인 재배자의 협력이 더해지는 것. 스위스 알프스의 고산 샘물(Spring Water) 철갑상어 서식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라프레리의 연구실에선 최적의 품질을 갖춘 캐비아 성분이 생산되고, 고스란히 제품에 담겨 피부 속까지 전해진다. 이처럼 완벽을 기해 탄생한 캐비아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 라프레리는 시그니처인 코발트 블루 케이스 중앙에 골드 컬러 비즈가 보이는 실버 프레임을 더했다. 최소 사용시 활성 펌프를 누르면 2개의 분리된 체임버에 담긴 캐비아 비즈와 우윳빛 에멀션이 부드럽게 혼합되어 나온다. 산뜻한 텍스처로 바르는 즉시 피부에 쏙 스며드는 세럼은 아침 저녁으로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을 바른 뒤 사용하면 효과적.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완벽히 섞인 상태의 포물러를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손끝으로 얼굴과 목 주변에 퍼 바른다. 완전히 흡수시킨 후 필요와 기호에 따라 캐비아 성분을 함유한 모이스처라이저(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쉬어, 스킨 캐비아 앰플루트 킨투어) 또는 스킨 캐비아 리스 슬립 마스크로 마무리하면 더욱 매끄럽고 탄탄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50ml 88만3천원, 문의 02-511-6626 에디터 이예미



ORIGIN OF CAVIAR SCIENCE
"켈루라 테라피는 단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폴 니한스 박사
라프레리에서 선보이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의 근간이 되는 '켈루라 콤플렉스'. 이는 1931년, 클리닉 라프레리 설립 이래 폴 니한스 박사가 개발한 세포 치료법인 '켈루라 테라피'에 기초해 탄생시킨 것으로, 생기와 에너지를 더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는 핵심 성분이다.

Sponsored by la prairie

리퍼레이스킨케어 애벤스인
피운데이션 #25 모슬린 블러워



Glowing Skin

올 가을, 겨울엔 윤광이 강도는 투명한 피부 표현이 대세다. "이번 시즌 '자연스러움'이란 낱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급스러움을 말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린지 알렉산더의 말처럼 세련된 글로 스킨을 표현하고 싶다면 몇 가지 트릭이 필요하다. 유·수분감이 적당한 기초 제품을 선택할 것, 눈가를 유는 피운데이션으로 커버하지 말 것, 꼭 필요한 부분에만 피우더를 도포할 것, 컨실러를 섬세하게 활용할 것



샤넬 팔레트
에센스샐 160
베쥬 미디엄

Sculpting Contour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노 피운데이션 룩'이 메이크업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정성스레 조각하듯 얼굴에 음영을 더하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의 유행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다면 모든 과정에서 소량의 제품을 사용해 가볍고 자연스러운 베어 스킨으로 연출하는 것을 잊지 말고, 투명한 윤기 표현에 집중할 것.

2020 F/W beauty trend

탐스러운 글로 스킨과 원 포인트 레드 립, 경계를 허문 아티스틱한 아이라इन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제안하는 2020년 하반기 뷰티 트렌드.

구찌 부드르 드 보메
마드 나뉘렐 뷰티
파우더 #00



Tory Burch
©NARS

바버라 헤르티그 x 시아라 프렌치 리퍼레이스킨케어
스틱 크림 아이 라이너



GIVENCHY

자칭시 르즈집
발벳 #N37



MSGM
©M.A.C

Red Lips

블랙 아이 & 레드 립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룩의 재해석이 돋보이는 2020 F/W 시즌. 특히 전통적인 스타일에 가깝게 표현한, 모던하면서도 웨어블한 방식의 원 포인트 레드 립 메이크업이 눈에 띈다. MSGM 쇼에서 발견한 레드투 글램 무드의 오렌지 레드 립부터 질 샌더 우연의 지적 이고 우아한 다크 레드 립까지, 다양한 세이 드와이에 따른 연출 방식을 참고해보자.



DIORSHOW
ICONIC OVERCURL

다들 다들 쇼 아이코닉
오버컬 #030

Abstract Lines

재능 넘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아이라इन과 마스크라만으로도 매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메이크업을 펼쳐 보였다. 눈가에 추상적인 라인을 그려 넣어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한 것. 마스크라와 물을 섞어 바른 뒤 흘러내리는 라인을 그대로 활용한 구찌, 눈 앞뒤로 대조를 이루는 그래픽적 라인을 그려 마라져 부양스를 풍긴 랙맨, 1960년대 모즈 룩에서 영감을 얻어 아이콜라 인드라인에 보다 대담한 라인을 그려 넣은 셀렌느 등이 대표작이 예.



매세줄 샤페르
인스트림
#싱글뉴런트



나스 퍼워풀루스
아이 페인드
#소크 엠

Jeweled Eyes

빌렌티노, 지안바티스타 발리, 에르메, 프라다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크리스탈, 금박, 글리터 장식 아이 메이크업으로 전례 없던 대담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주얼리와 같은 디테일은 얼굴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산텔 밀라의 조언처럼, 윤기를 화려하게 반짝이는 눈매가 가져다줄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까이 즐겨볼 차례다. 에디터 **이혜미**

editor's Pick

탄력 증진과 보습, 집중적인 스킨케어를 위한 (스타일 조선일보) 뷰티 에디터들의 픽!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우부터 시계 방향) 샤넬 루쥬 일부르 리고 #64 액시언스 로즈우드 광채, 컬러 감, 지속력, 편안함 모두를 이루는 샤넬의 신상 립, 크리미한 텍스처가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산뜻한 색감을 부여한다. 특히 바르고 나면 입술에 잔해는 풍부한 수분감이 일품이다. 함유된 사만 우드와 소독 비만인 E 성분이 입술을 보호한다. 5.5ml 42,600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by 에디터 이주이

랑뎀 입술취 24K 골드 크림 마스크 얼굴이 건조하다 못해 푸석푸석해 보이기까지 하던 어느 날, 저녁 세안 후 사용했다니 다음 날 아침 미치 크림 한 통을 바른 듯한 촉촉함이 느껴졌다! 24K 골드와 장미 추출물, 다마스쿠스 로즈 에센셜 오일, 그리고 프록시린 성분은 담은 소프트 크림 15ml 용량을 마스크 1장에 담았다는 문구 그대로다. 15g X 5개 162,500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장미윤

아베라에 코롱 클리닝 마스크 아베라에서 느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우디 프루티 계열 향수는 에디터의 최대 인기. 새로운 원료와 문화를 찾아 떠난 두 창립자의 캘리포니아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다. 시트러스 계열의 클리닝과 주니퍼베리가 어우러진 그린 노트가 선풍적으로 베이스와 만나 깔끔하고 투명한 전드리스 향을 전한다. 100ml 192,000원. 문의 02-3438-6079. by 에디터 이주이

데오르테 리프트 디펜스 스쿠임 클리닝 오일 클리닝과 스킨케어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심 추출물, 정맥열 열매 추출물, 플라센트 트라판타이드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을 듬뿍 담았다. 산뜻한 오일 텍스처가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세안 후 피부에 보습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 기본 좋은 로즈 향도 10점 만점에 10점! 200ml 62,500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주이

오노마 워터 투머로우 에센스 락커 다양한 효과를 지닌 에센스를 레아워하는 스킨 케어로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제안하는 오노마. 그중 에센스 락커는 젤 크림 제형으로 피부에 촉촉하게 밀러 미치 얼굴에 마스크 팩을 얹은 듯 밀고 투명한 막을 생성한다.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세라이드와 해양 식물에서 추출한 효능이 있어 콜라겐 배양에 도움을 주는 영양인 덕분이다! 피부가 속부터 건강해지는 듯하다. 50ml 5만 2천원. 문의 1600-5802. by 에디터 이주이

매종 마르자콜라 플로럴 마제 이클 그대여 글썽 수확한 꽃과 촉촉한 이슬을 머금은 신선한 꽃으로 가득한 유럽 어느 꽃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풍성하고 신선한 꽃향기가 생생하게 풍기는데, 7분까지 좋아진다. 향수의 매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울거울거 재료를 애용하게 될 듯하다. 100ml 1만 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장미윤

구찌 부드르 드 보메 마드 나뉘렐 뷰티 파우더 #01 매트 내추럴 마무리 단정하게 사용 용하기 좋은 매트한 질감의 페이스 파우더. 여러 번 덧발라도 피부 톤이 뜨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화촉하는 데다, 화장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까지 지니 만족스럽다. 은은한 플로럴 향에 7분까지 입도는 느낌. 10g 82,000원. 문의 080-880-0708. by 에디터 이주이

비야레도 컬러 스틱 #미디엄 블루 영국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미야 프렌치 (Isamaya French)와 협업해 출시한 비야레도의 새 메이크업 컬렉션을 통해 선보이는 컬러 스틱. 쉽게 정리하기 힘든 유니크한 컬러는 물론이고, 별도의 사용법을 생략하지 않아 자유로운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게 고안된 콘셉트가 흥미롭다. 용량 1.5g 42,000원. 문의 02-3479-1888. by 에디터 이주이

클로란 쿠푸루스 버터 인텐시브 밤 영색을 한 향료 허리가 다른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지는 머릿결, 에디터의 요즘 관심사는 청량한 밤향기인 에센셜 오일과 더불어 가는 것. 시아라프렌치 보습 효과가 뛰어난 쿠푸루스 버터가 주성분으로, 여기에 해바라기 씨, 코코넛이 오일 등 자연에서 얻은 오일! 모발 표면의 큐티클을 매끈하게 관리해준다. 따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사용법에 스타일링 크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대박이다. 150ml 92,000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이주이

자칭시 리퍼레이스킨케어 글로우 부스팅 마스크 즉각적으로 피부에 광채와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말이 호기심만, 기대 반으로 사용해본다. 핑크 진주빛 질 텍스처의 마스크를 피부에 5분간이나 미온수로 씻어내니, 촉촉해진 피부 톤이 한결 밝고 정돈되어 보였다. 자칭시 워터, 출근 전 아침에 사용하기도 좋을 듯. 75ml 82,000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이주이

스쿠머 크림 피운데이션 #210 텍스처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운데이션. 물고 얇아 버는 즉시 피부에 밀착해 스며든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되는 은은한 윤기가 마음에 든다. 총 12가지 세이드로 출시해 피부 결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다. 30g 122,000원.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장미윤

담피르 플러그 다퓨저 잠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자연스레 홈 프라이드 스킨 케어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담피르에서 향기 캡슐을 내장한 콤팩트한 케이스 형태의 플러그 다퓨저를 소개했다. 플러그에 꽂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 가득 은은한 향기가 채워졌다. 골드 컬러 타이포그래피를 새긴 감각적인 디자인이 주는 인트로덕션 효과도 훌륭하다. 162,500원. 문의 02-3479-6049. by 에디터 이주이

리퍼레이스킨케어 입술취 키펀 리퍼레이 하면 자몽으로 케어! 사이언스가 떠오른다. 케어에서 영감이 가장 풍부한 두 가지 성분인 케어 오일과 케어 단백질 성분을 분리해 얻은 고효율 성분 케어 오일과 케어 단백질을 매끄럽고 탄탄하게 해준다. 아침저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목과 데콜레타의 탄력 변화를 느꼈다. 60ml 81만 원.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장미윤





1 브롬톤 S2L-X 슈퍼라이트 3백71만원 **브롬톤 by (주)산바다 스포츠**, 02-555-5199, 메신저 백 가격 미정 디올, 02-3480-0104 2 면티셔츠 6만5천원 **나이키**, 02-3452-8234 3 캐논대일 인티아크 헬멧 9만8천원 **캐논대일 by (주)산바다스포츠**, 4 비닐백이 접혀 11만9천원 **내셔널지오그래픽**, 02-1588-2906 5 면 양말 9천9백원 **홀리데이**, 1577-3472 스키즈 90만원 **자비스**, 02-546-2790 6 겸 5만9천원 **파타고니아**, 1544-1876, 슬리본 아이본 16만9천원 **비츠 바이드레**, 080-330-8877 7 아이대 1만원 **푸아**, 080-082-0888 8 라카리 디렉스 7 1백77만원 **라이카**, 1661-0405 9 백팩 가격 미정 **얼버리**, 02-2018-1400 10 쇼츠 10만9천원 **파타고니아**, 11 방수 코트 판초 가격 미정 **에이비스**, 02-542-6622, 스가죽 파우치 47만9천원 **얼버리**, 에디터 장라윤

On a bicycle

햇살과 바람이 좋은 날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청명한 어느 가을.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editor's Pick

탄력 증진과 보습, 집중적인 스킨케어에 위한 <스타일 조선일보> 뷰티 에디터들의 픽!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우부터 시계 방향) **샤넬 루주 일부리 리프 #64 엑시엔스 로즈우드** 광채, 컬러감, 지속력, 편안함 모두를 이루는 샤넬의 신상 립. 크리미한 텍스처가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산뜻한 색감을 부여한다. 특히 바르고 나면 입술에 잔해는 물론 한 수분감이 일품이다. 함유된 사핀 우드의 소독 비탄인 E 성분은 입술을 보호해준다. 장기간으로 집어차는 시드한 블랙 레커 케어는 여성을 시로감에 흥분한다. 5.5ml 42만6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_by 에디터 이주이

랑콤 앰쉬워 24K 골드 크림 마스크 얼굴이 건조하다 못해 푸석푸석해 보이기까지 하던 어느 날, 저녁 세안 후 사용했다니 다음 날 아침 미치 크림 한 통을 바른 듯한 촉촉함이 느껴졌다! 24K 골드와 장미 추출물, 다마스쿠스 로즈 에센셜 오일, 그리고 프록시린 성분을 담은 소프트 크림 15ml 용량을 마스크 1장에 담았다는 문구 그대로다. 15g X 5개 16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장라윤

아베라에 코롬 클렌징 폼 피부가 심름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우디 프루티 계열 향수는 에디터의 최대 인기. 새로운 원료와 문화를 찾아 떠난 두 창립자의 캘리포니아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다. 시트러스 계열의 클렌징폼과 주머니처럼 가벼워진 그린 노트가 선물우드 베이스와 만나 깔끔하고 투명한 전도리스 향을 전한다. 100ml 1만2천원, 문의 02-3438-6079_by 에디터 이주이

데오르테 리프트 디펜션 스쿠인 클렌징 오일 클렌징과 스킨케어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심 추출물, 켈리꽃 열매 추출물, 콜라겐 트라판타이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을 듬뿍 담았다. 산뜻한 오일 텍스처가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세안 후 피부에 보습막을 씌워준 듯한 느낌. 기본 좋은 로즈 향도 10점 만점에 10점! 200ml 5만5천원대,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이주이

오노마 워터 투머로우 에센스 락커 다양한 효과를 지닌 에센스를 레아워하는 스킨케어로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제안하는 오노마. 그중 에센스 락커는 젤 크림 제형으로 피부에 촉촉하게 밀러 미치 얼굴에 마스크 팩을 얹은 듯 밀고 투명한 막을 생성한다.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세라미드와 해양 산물에서 추출한 효능이 칼라스 배양 야채들의 풍부한 영양인 덕분인지 피부가 속부터 건강해지는 듯하다. 50ml 5만2천원, 문의 1600-5802_by 에디터 이주이

매종 마르자렐라 플로럴 마젠타 이름 그대로 글썽 수확한 꽃과 촉촉한 이슬을 머금은 산뜻한 꽃으로 가득한 유령 어느 꽃 시장 한복판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흥성하고 산뜻한 꽃향기가 상쾌하게 풍기는데, 7분까지 좋아한다. 향수의 매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술거를 재빠르게 애용하게 될 듯하다. 100ml 1만원, 문의 080-363-5454_by 에디터 장라윤

구비 부드르 드 보메 안티 나뭇잎 뷰티 파우더 #1 매트 내추럴 마무리 단계를 사용하지 않은 메트한 질감의 파우더 파우더. 여러 번 덧발라도 피부 탄이 뜨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화촉하는 데다, 화장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까지 지녀 만족스럽다. 은은한 플로럴 향에 7분까지 압도하는 느낌. 10g 823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이주이

바이레도 컬러 스틱 #미디엄 블루 영국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미야 프렌치 (Isamaya French)와 협업해 출시한 바이레도의 새 메이크업 컬렉션을 통해 선보이는 컬러 유즈 스틱. 쉽게 잡히기 힘든 유니크한 컬러는 물론이고, 별도의 사용법을 장려하지 않아 자유로운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게 고안된 콘셉트가 흥미롭다. 용량 미정 4만9천원, 문의 02-3479-1688_by 에디터 이주이

클로린 쿠푸아수 바터 인텐티브 밤 영색을 한 야로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지고 거칠어지는 머릿결, 에디터의 요즘 관심사는 청결한 밤엔 머리엔 머릿결로 돌아가는 것. 시아바바바도 보습 효과가 뛰어난 쿠푸아수 바터가 주성분으로, 여기에 해바라기 씨, 코코넛아자 오일 등 자연에서 얻은 오일이 모발 표면의 큐티클을 매끈하게 관리해준다. 따로 씻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사용법에 스팀링 크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대만족이다. 150ml 2만2천원, 문의 1899-4802_by 에디터 이주이

자비스 렐랑에탈 블라썸 글로우 부스팅 마스크 즉각적으로 피부에 광채와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말이 로기심만, 기대 반으로 사용해본다. 핑크 장맛빛 질 텍스처의 마스크를 펴 바르고 5분이 지나 미온수로 씻어내니, 촉촉해진 피부 탄이 한결 맑고 정돈되어 보였다. 자체은 물론, 출근 전 아침에 사용하기도 좋을 듯. 75ml 826천원대,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이주이

스쿠머 크림 파운데이션 #210 텍스처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운데이션. 물고 얇아 바르는 즉시 피부에 밀착해 스며든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되는 은은한 윤기가 마음에 든다. 총 12가지 세이로 출시해 피부 컬러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다. 30g 12만8천원, 문의 02-6905-3369_by 에디터 장라윤

담티크 플러디 다뮤지 잠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자른스케 홈 프라이드스 제품 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담티크에서 향기 캡슐을 내장한 콤팩트한 케이스 형태의 플러디 다뮤지를 출시했다. 플러디에 꽃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 가득 은은한 향기가 채워졌다. 골드 컬러 타이포그래피를 새긴 감각적인 디자인이 주는 인트로에 효과도 훌륭하다. 16만5천원, 문의 02-3479-6049_by 에디터 이주이

리프테리 스킨 케어 앰쉬워 컨투어 리프라이 하얀 자른스로 케어 시아인스가 떠오른다. 케어에서 영감이 가장 풍부한 두 가지 성분인 케어 오일과 케어 단일질 성분을 분리해 얻은 고품질 성분 케어 앰쉬워를 담아, 피부결을 매끄럽고 탄탄하게 해준다. 아침저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목과 데콜레의 탄력 변화를 느꼈다. 60ml 81만6천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장라윤



la prairie SKIN CAVIAR ABSOLUTE CONTOUR
GIVENCHY L'INTEMPOREL BLOSSOM Masque Booster d'Éclat Glow Boosting Mask
COCOS THE CREAM FOUNDATION LE FOND DE TEINT CRÈME
KLORANE MASQUE NUTRITION & RÉPARATION au beurre de Cupuçu BIO NOURISHING & REPAIRING MASK with ORGANIC Cupuçu butter

BYREDO REPLICA
 REPRODUCTION OF FAMILIAR SCENTS AND MOMENTS OF VARYING LOCATIONS AND PERIODS
 Originally: Flower Market
 Provenance and Period: Paris, 2011
 Fragrance Description: crisp petal freshness
 Style Description: Female fragrance
Maison Margiela PARIS

onoma WONDER Tomorrow™ ESSENCE LOCKER
 total care 50 ml / 1.69 fl. oz.

Atelier Cologne
 Clementine California Cologne Absolue

LANCÔME PARIS ABSOLUE
 LE MASQUE CRÈME RÉGÉNÉRANT ILLUMINATEUR THE REGENERATING BRIGHTENING CREAM MASK WITH GRAND ROSE EXTRACTS & 24K GOLD



Ralph Lauren
MADE IN ITALY

최상의 소재와 퀄리티를 지닌 최고급 남성 라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을 만나보세요.

OPENING IN SEPTEMBER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TEL. 02 3438 6235